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24)(1/28/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1 장 온갖 좋은 은사들보다도 하나님에게서 안식을 구함, 3 절

신 7:21 -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사 54:4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 10:31 -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행 18:9-10 -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3. 나의 지극히 사랑스러운 정혼자이시고 지극히 순결하신 연인이시며 이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는 내게 참된 자유의 날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께로 날아가서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시 55:6).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런 날이 언제 내게 찾아와서, 내가 주의 지극한 아름다우심을 직접 이 눈으로 보아 알게 될까요? 언제쯤이면 내가 오직 주께만 온전히 몰두해서,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무아지경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모든 감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을 느끼게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나는 나의 불행을 짊어진 채로, 자주 탄식하고 신음하며 고통하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좋지 않은 비참한 일들이 첩첩산중처럼 내게 엄습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나를 흔들어놓고 짓눌러서 괴롭고 슬프게 만들며, 나를 방해하고 정신을 흐트러놓으며 유혹하고 움아매는 까닭에, 나는 주께 자유롭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복된 영혼들을 위해 늘 준비되어 있는 달콤한 포옹을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탄식과 내가 느끼는 온갖 쓸쓸함이 주님을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해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경우 삶 속에서 그러한 내면의 깊은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도 많을 것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 가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고난 때문일 수 있다. 예수님은 요 16:33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요 16:33 -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요 16:33)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안식을 빼앗길 수도 있는 외적인 환난을 경험할 것임을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요 16:33)**.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요 16:33 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메시지 - 환난과 평안 - 가 같이 들어 있음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점은 환난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심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결과는 바로 평안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내면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다.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의 문제는 외적인 것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의 문제임을 알게 한다. 외적인 것이 지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죽음조차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요 11:25). 바울은,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전 15:53-54)고 말씀했다.

안식의 문제가 우리 마음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안식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알게 한다. 내가 가진 근심, 떨쳐버리지 못한 불안감, 지나친 두려움과 조바심 등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메시지이다. 신 7:21 -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사 54:4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 10:31 -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행 18:9-10 -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들은 두려워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그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이다.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믿고 의식하며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 나 스스로가 만든 불안과 근심을 주님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동행과 내 안에 계심을 굳게 믿는 사람, 매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나의 안식을 앗아가는 온갖 부정적인 방해물들을 다 제어하고 비워냄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영적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2. 갖가지 문제로 고통 당하며 무너진 상태에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며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3. 핍박 속에 신앙생활하는 이 땅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지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 땅의 어두운 세력들이 속히 물러가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구원받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